지리산 횡단 도로 존폐 새국면

심원마을 주민 "이주·보상땐 찬성"

달궁 주민들은 도로 폐쇄 반대 여전

지리산 인근 일부 주민들이 이주 및 보상을 전제로 성삼재 횡단도로(지방도 861호) 폐쇄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혀 최근 계속되고 있는 지리산 횡단도로 폐쇄 논란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심원마을 21가구 주민 50여명은 지난 4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전남도 등에 보낸 진정서를 통해 "1순위로 이주 및 보상이 이뤄진다면 횡단도로 폐쇄에 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이와 함께 ▲이주 및 보상 이전에 도로 폐쇄 반대 ▲셔틀버스 운행 반대라는 의견을 함께 전달하고 30년 터전을 잃을 수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남원지역 달궁 주민들은 여전히 도로 폐쇄에 반대하고 있어 7일로 예정됐던 시민단체의 지리산 걷기 행사가 반쪽으로 치러졌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이하 국시모)과 지리산 생명연대(이하 생명연대) 회원들은 이날 오전 구례군 천은사 주차장과 전북 남원시 산내면 달궁 야영장을 동시에 출발해 횡단도로 정상에서 만나는 '걸어서 성삼재까지'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도로 폐쇄에 반대하는 달궁주민들은 생명연대 측에 행사취소를 요청했으며 생명연대도 주민들과의 마찰을 우려해 구례지역에서만 행사를 열었다.

한편 국립공원 공단측은 "최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88년 개통된 지리산 성삼재 도로는 연간 이용 차량이 45만여 대에 달하고 있으며 성삼재를 방문하는 탐방객 수도 연간 110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요" 고흥군이 지난 2일 '제 1회 노인 장수 건강체조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각 읍·면에서 선발된 600여 명의 주민들이 참가했으며 남양면이 대상을 차지했다. 고흥군 보건소는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내년에는 건강체조교실을 33개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흥=대성수기자 dss@

30여년간 개인소유 땅에 한전 송전철탑 무단 설치

땅 주인 이모씨 "재산권 행사 큰 피해" 주장

한국전력이 지난 30여년간 무단으로 완도군 신지면 개인 소유 산에 송전용 대형 철탑을 설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모(43·완도읍 개포리)씨는 최근 신지면 송곡리 산 235번지 산을 매각하려다 한전 철탑이 위치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철탑 때문에 매입 희망자가 너무 낮은 가격을 요구한다며, 철탑을 옮겨주던지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러줄 것"을 한전 전남본부에 진정했다.

이에대해 한전측은 규정상 130여만원의 보상금만 지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씨는 피해보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이모씨는 "한전이 지난 1973년부터 무려 34년간 주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무단으로 철탑을 설치하고 전력공급을 하고 있다"며 "한전때문에 사유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보상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일대는 지난 2005년 말 완도읍과 신지도 간을 잇는 연륙교가 개통돼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해남 '공룡과 해맞이' 조형물

'빛 태고로부터' 선정 … 계곡면에 세워

해남 계곡면에 '공룡과 해맞이' 상징 조형물이 세워진다. 해남군은 "최근 '도로 아치 조형물 선정위'를 열고 '빛 태고로부터'라는 공모작을 선정했다. 〈조감도〉

이 조형물은 스테인리스 스틸 금속 재질과 화강석으로 제작돼 '공룡의 고장'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세계를 비추는 햇살을 형상화해 '희망찬 해맞이의 땅'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해남=박정옥기자 jopark@

화순군-의회 추경안 처리 파문

郡측 모후산 테마파크 예산 삭감 반발 원안 철회

의회 "예산낭비 우려 깎아"…郡 "절차상 하자없다"

화순군이 군의회에 의해 추경 예산 일부가 삭감됐다는 이유로 추경안 원안을 철회해 파장이 일고 있다.

화순군은 최근 군의회 예산결산위가 90억원 규모의 추경안중 모후산 테마파크 조성 관련 사업비 25억7천300만원을 삭감하자, 지난 5일 추경예산안 자체를 철회했다.

군의회 측은 이에대해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을 깎았다는 이유로 예산안을 철회한 것은 군민 대의기관인 의회를 알잡아 보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비난했다.

군의회 모 의원은 "모후산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현재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이 진행중인 상태로 용역 결과도 나오기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자칫 예산 낭비 우려가 커 삭감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군은 "모후산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미래 지역경제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사업으로 착수가 시급한데 의회가 자꾸 발목을 잡고 있다"며 "오는 12월까지 추경안을 제출하면 돼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나주 '학생 국악발표회' 수준급

올해도 34개교 476명 사물놀이 등 기량 뽐내

나주 관내 초·중등 학생들이 특별활동이나 방과후 학교 시간에 익혀온 각종 재능을 펼치는 '학생 국악발표회'가 새로운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학생 국악발표회'는 예향 남도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학생들의 특기와 소질을 조기에 계발하기 위해 10여년전부터 나주교육청이 개최하고 있다.

지난 5일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는 관내 초·중등 34개교 476명이 참가해 사물놀이와 민요, 국악기 연주 등 10개 종목에 걸쳐 그동안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냈다.

특히 올해는 참가팀별 재능이 학생 수준을 뛰어 넘을 정도로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을빈 나주교육장은 "매년 열리는 국악 발표회가 학생들의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창조적 표현과 예술적 감각을 일깨우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불우 이웃 도움 주는 '사랑나눔 후원자'

나주시 연중 수시 모집

나주시가 불우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랑 나눔 후원자'를 찾는다.

나주시는 지역 내 저소득 세대나 위기 가정 등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1% 나눔 100% 행복 만들기-사랑나눔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는 관이 주도해온 기존의 1회성 이웃돕기 결연행사가 실제로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원자가 후원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후원자가 주 2~3회 안부전화를 하고 수시로 밑반찬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후원대상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누구나 후원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수시 접수한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월출산 탐방로 등급제 실시

4개 등급 안내판 설치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출산사무소가 탐방객(등산객) 안전을 위해 탐방로 등급제(난이도)를 실시하고 있다.

월출산사무소는 지난 7월부터 월출산 국립공원 내 탐방로를 소요 시간과 경사도, 노폭, 노면상태 등을 평가해 A(숙련자 코스), B(경험자코스), C(초보자 코스), D(산책코스) 등 4개 등급으로 나눠 안내판을 설치했다.

월출산사무소 관계자는 "탐방로의 세부 정보를 탐방객에게 제공해 월출산을 처음 찾는 탐방객(등산객)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월출산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한 22건의 안전사고 중 조난 1건을 제외한 21건이 탈진과 골절 등 무리한 산행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

光州日報 인터넷 신문
www.kwangju.co.kr

고흥 깐마늘·고춧가루 수도권 지역 학교 공급

고흥 지역 대표 특산물인 마늘과 고춧가루가 농산물 유통회사인 고흥군 농수축산물유통㈜을 통해 8일부터 수도권 학교급식용 등으로 공급된다.

지난 8월 민·관 공동출자 방식으로 출범한 고흥유통㈜은 수도권 학교와 공공기관 연수원 등에 지역 농산물을 납품하게 된다.

이번 납품으로 매주 깐마늘과 고춧가루 등 600kg을 판매해 연간 6억 원의 매출 실적 증가가 기대된다.

/고흥=대성수기자 dss@